

肢體障礙主婦의 組織的인 行動과 家族構成員의 參與度 調査研究

Physically Disabled Homemaker's Organizational Activities and Family Participation

延世大學校 家政大學 住生活學科

教授 尹 福 子
研究助教 池 恩 京

*Dept.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Professor; **Bok Cha Yoon (Lee)**

Research Assistant; **Eun-Kyung Zhi**

<목 차>

I. 서 론
II. 문헌고찰
III. 연구방법

IV. 조사결과 및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o describe the group of selected disabled homemakers in terms of demographic and medical variables related to organizational activities in the home and family participation in household activities.
- 2) To identify those demographic and medical variables that were related to organizational activities in the home and family participation in household activities.
- 3) To identify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activities in the home and family participation in household activities.

Questionnaires were given to the selected disabled homemakers living in Seoul. The sample was small(N=35) and it was not random; therefore generalizations could not be made to the population as a whole. Data were analyzed by mean, Kruskal-Wall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by ranks, and 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s.

Homemaker's organizational activities were measured by 16 items about physical and mental activities from Mumaw's Organizational Activities Index. Family participation in household activities was measured by 8 items about how often family members participated in two areas of household activities: house chores and extra-activiti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homemaker's higher organizational activities scores were associated with younger

homemaker,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small households, and higher the economic status. The homemaker without children performed better organizational household activities. The homemaker with shorter the duration of disability performed better organizational activities. The homemaker who needed crutches for mobility performed better organizational household activities.

2) The homemaker who was younger,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with smaller households, and lower the economic level was helped by husband. Husband helped better the homemaker with shorter the duration of disability in household activities.

3) Factors affecting children's participation in disabled homemaker's house chores and extra-activities were the age of homemaker and the marital status. The homemaker was single and older, the children were more helpful.

4) Task standardization score was the highest among the factors of homemaker's organizational activities and families with a disabled homemaker participated more extensively than families with abled homemaker.

5) Significant inter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dependent variables.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인구의 자연증가와 향상된 건강관리로 인한 수명의 연장,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장애자의 출현율이 증가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제30조에는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누리며 평등하게 존중되고 또한 여러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국가가 최소한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 장애자라 할지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않는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장애인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10%는 장애자이며, 전 세계의 총장애인구에 매년 적어도 3백만명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 1975년 제19차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

자의 권리선언은 장애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심신장애자가 901,800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지체장애자는 596,600명에 해당된다. 다시말해 심신장애자는 전인구의 2%, 지체장애자는 전인구의 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²⁾.

Goldsmith³⁾는 완전히 정상적인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완전히 비정상적인 인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심신장애자를 비정상인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인간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Malick⁴⁾은 장애인구가 소외당한 대중이라 불리우며 이중의 대부분은 장애가 있는 가정주부라고 했다. 매일같이 가족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며 가정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주부가 장애로 인해 받는 어려움은 더 말할나위 없이 클 것이다.

장애주부에 대한 연구는 가족과 사회의 경제면에서와 가족구성원에게 주는 충격면에서 볼 때 연구의 가치가 있다. 또한 가정에서 주부들이 수행하고 있는 관리행동이 지체장애를 지닌 주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체장애주부가 수행하는 조직적인 행동과 가족구성원의 참여도를 조사하기 위해 착안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체장애주부의 조직적인 행동과 가족구성원의 참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여 가사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장애주부의 조직적인 행동과 그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참여도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지체장애주부의 조직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한다.
- 2) 지체장애주부의 가사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참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한다.
- 3) 지체장애주부가 수행하고 있는 조직적인 행동과 가족구성원의 참여도를 조사한다.
- 4) 가족구성원의 참여도와 지체장애주부의 조직적인 행동과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3. 가정 및 가설

1) 가 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을 인구통계학적 변인(주부의 연령, 학력, 가족수, 생활비, 배우자유무, 자녀유무)과 의학적 변인(시각상의 장애, 장애기간, 보행상태, 장애부위)으로 국한하였을 때 종속변인인 지체장애주부의 조직적인 행동(일의 표준화, 일의 분담화, 일의 조정화, 일의 정리화)과 가족구성원의 참여도(가사활동, 여가활동)에 상호연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2) 가 설

- <가설 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지체장애주부의 조직적인 행동에 차이가 있다.
- <가설 2> 의학적 변인에 따라 지체장애주부의 조직적인 행동에 차이가 있다.
- <가설 3>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참여도에 차이가 있다.
- <가설 4> 의학적 변인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참여도에 차이가 있다.

II. 문헌고찰

본 연구를 위해서 조직성이 가정관리의 개념으

로 정착된 이후의 조직적인 행동의 개념과 분류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였으며 가족구성원의 참여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요약정리하였다.

1. 조직적인 행동

가정관리는 응용과학이며 가정과 가정환경의 모든 면에 작용하는데 오늘날은 가정환경과 더 넓은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가정을 한 단위로 보는 인간 중심에 중점을 두고 있다^{5,6)}.

조직성에 대한 개념은 1899~1908년 사이의 Lake Placid Conference 에서부터 관리행동의 한 분야로 간주되었다. 지금까지의 관리의 기본개념은 의사결정과 의사수행이었는데, 1961년 French Lick Conference 에서 의사결정과 조직성을 중심으로 가정관리의 개념체계를 개발 정착시켰다⁷⁾. 그후 관리의 기본개념으로서 조직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8~11)}.

Bell⁷⁾은 조직성을 가정의 자원과 자원의 사용방법을 가정의 가치체계에 적합한 형태로 정리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Mumaw¹²⁾은 조직성을 주부가 일의 완성을 위해 계획을 창안하고 수행하는 행동의 결과로서 생기는 관계에 대한 구성으로 개념화시켰다. 또한 Walker¹³⁾은 조직성을 동시에 여러 가지 일 또는 사람들을 다스리며 가사일을 긴밀하게 조정하는 능력과 방법으로 정의내리며 조직적인 행동은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Nichols¹⁴⁾은 조직적인 행동을 6요인으로 Schlater¹⁵⁾은 5요인으로 분류했으며, Mumaw와 Nichols¹⁶⁾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표준화, 분담화, 조정화, 정리화 등의 4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가정에서 매일 수행해야 되는 많은 계획들은 행동의 다양성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행동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주부의 조직적인 행동이 필요하며¹⁶⁾, 특히 장애가 생긴 후 가사일의 합리화와 방법의 변화는 절대 필요한 것이다. 즉, 좀 더 쉬운 방법과 가사일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가사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주부의 조직적인 행동이 더욱 필요하다¹⁷⁾.

2. 가족구성원의 참여도

가정생활이 있는 곳에 가사노동이 있으며¹⁸⁾, 가

족이라는 집단만큼 협동이 중요한 집단은 없다¹⁹⁾. 따라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활동은 주부를 중심으로 남편과 자녀가 협력하고 분담하므로써 가정운영에 대한 역할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가족구성원의 참여는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장애자가 있는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의 참여도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정우²⁰⁾, 윤복자²¹⁾, 서영숙과 조필교²²⁾, 임정빈²³⁾등 가족구성원의 참여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이것은 장애가 없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Steidl과 Bratton²⁴⁾은 1926년부터 1968년까지의 기사일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참여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서, 심신장애자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해 연구되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결과의 어떤 것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Manning²⁵⁾의 연구에서는 주부가 장애자인 경우가 다른 가족구성원이 장애자인 경우보다 가족구성원이 기사일에 소비하는 시간이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에서 개인의 장애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사회생활에 영향을 준다²⁶⁾고 했다.

Ⅲ. 연구방법

1. 도구의 작성

실태조사에 사용된 도구는 Mumaw¹²⁾의 경향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관련된 주부의 조직적인 행동연구에서 사용한 문항과 Mumaw와 Nichols¹⁵⁾, Parker²⁷⁾, Walker¹³⁾ 등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전문가에 의한 내용검증과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검증을($r=.73$) 하였다. 본 설문지 내용은 조직적인 행동에 관한 16문항, 가족구성원의 참여도에 대한 8문항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과 의학적 배경을 조사한 8문항 등 총 32문항으로 작성되었다.

2. 실태조사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은 1980년 11월 한국보건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심신장애자 실태조사 결과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자주부만 추출하였다. 그 결과 15개 구 47명이었으며 그 중 35명만이 1981년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의 조사기간중 방문면접이 가능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백분율, 평균, Kruskal-Wallis의 순위일원변량분석,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Ⅳ. 조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학적 배경과 의학적 배경을 조사하였다.

인구학적 배경으로는 주부의 연령, 학력, 가족수, 생활비, 배우자유무, 자녀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주부의 연령은 30세미만부터 50세이상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연령은 43세로 나타났다. 주부의 학력은 중학교졸업이 28.6%, 국민학교졸업과 고등학교졸업이 각각 25.7%, 대학교졸업이 20.0%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가족수는 4~5명이 57.1%로 가장 많았고 평균가족수는 4.3명으로 서울시 가구당 평균인원 4.4명*과 별 차이가 없었다. 생활비는 20만원미만이 37.2%, 20만원~40만원미만이 34.3%였으며 월 평균생활비는 345,700원으로 서울시 근로자 월 평균지출액인 192,200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배우자유무는 배우자가 없는 주부가 8.6%로서 그 이유는 모두 사별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유무는 자녀가 없는 주부가 11.4%, 막내자녀의 나이가 7세미만인 주부가 16.1%였다.

의학적 배경으로는 시각상의 장애, 장애기간, 보행상태, 장애부위 등을 조사하였다. 지체장애에 시각상의 장애가 겹칠 경우, 시각상의 장애가 조직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했으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기간은 10년 이상이 60.0%로 가장 많았다. 보행상태는 사람이나 기구의 도움없이 보행가능이 88.6%로 대부분이었으며 차의자(wheelchair)로의 보행가능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부위는 다리가 71.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팔과 다리로 17.2%였다.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 및 주택센서스 잠정보고 1980.

***)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1980.

Table 1. 조직적인 행동 요인별 점수분포

(N=35)

조직적인 행동 점수범위	일의 표준화		일의 분담화		일의 조정화		일의 정리화		총 점 수	
	f	%	f	%	f	%	f	%	f	%
85~100	1	2.9	1	2.9	1	2.9	0	0	0	0
69~ 84	8	22.9	10	28.6	6	17.1	14	40.0	13	37.1
53~ 68	18	52.4	12	34.3	10	28.6	9	25.7	19	54.3
37~ 52	5	14.3	9	25.7	18	51.4	11	31.4	3	8.6
21~ 36	3	8.6	3	8.6	0	0	1	2.9	0	0
합 계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35	100.0
Mean		80.0		58.5		56.7		60.1		64.3
S.D.		11.0		17.7		14.4		15.9		9.8

Table 2. 가족구성원의 참여도 요인별 점수분포

가족구성원의 참여도 점수범위	남편 (N=32)						자녀 (N=27)					
	가사활동		여가활동		총 점 수		가사활동		여가활동		총 점 수	
	f	%	f	%	f	%	f	%	f	%	f	%
78~100	5	15.6	8	25.0	5	15.6	7	25.9	5	18.5	2	7.4
56~ 77	15	46.9	16	50.0	22	68.8	8	29.6	16	59.2	14	51.9
33~ 55	12	37.5	8	25.0	5	15.6	12	44.4	6	22.2	11	40.7
합 계	32	100.0	32	100.0	32	100.0	27	100.0	27	100.0	27	100.0
Mean		61.7		69.4		67.9		62.7		63.8		61.4
S.D.		13.7		20.7		12.3		16.6		20.1		15.5

2. 가설의 분석 및 논의

지체장애주부의 조직적인 행동을 일의 표준화, 일의 분담화, 일의 조정화, 일의 정리화 등의 4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으며, 가족구성원의 참여도는 가사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도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지체장애주부의 조직적인 행동요인의 점수분포현황은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각 요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점수는 20점이며 이것을 100점으로 환산하였다. 조직적인 행동의 총점수의 평균은 64.3점으로 대부분의 지체장애주부들이 가사일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체장애주부의 가사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참여도 점수분포현황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각 활동이 얻을 수 있는 최고점수는 가사활동이 25점, 여가활동이 15점으로 비교를 위하여 100점으로 환산하였다. 가족구성원의 참여도 평균점수는 남편의 참여도가 67.9점, 자녀의 참여도가 61.4점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남편의 참여도가 자녀의 참여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설 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지체장애주부의 조직적인 행동에 차이가 있다.

가설 1을 증명하기 위하여 Kruskal-Wallis의 순위일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모두가 .001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가설 1은 긍정되었다. <표 3>

젊은 층의 주부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수가 적을수록, 생활비를 많이 쓰는 가정의 주부일수록 가사일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Table 3.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조직적인 행동 검증

(N=35)

조직적인 행동 인구통계학적 변인		일의 표준화	일의 분담화	일의 조정화	일의 정리화	총 점 수
주부의 연령	30세 미 만	14.90	18.40	20.80	21.80	28.80
	30 ~ 39	19.00	12.45	19.25	16.25	14.95
	40 ~ 49	17.67	19.61	17.67	19.78	16.72
	50세 이 상	19.32	21.55	15.86	16.41	16.91
	χ^2	8.13*	6.26*	7.83*	7.51*	5.59*
학 력	국민학교졸업	16.11	14.44	15.94	11.58	11.67
	중 학교졸업	18.95	17.10	18.40	18.45	17.75
	고등학교졸업	17.67	20.07	20.72	24.78	22.00
	대 학교졸업	19.50	20.94	19.50	17.29	21.36
	χ^2	8.20*	7.16*	7.73*	5.28*	5.91*
가족 수	2 ~ 3 명	20.22	16.67	20.28	18.50	19.72
	4 ~ 5 명	17.40	18.88	17.78	18.03	17.85
	6 ~ 7 명	16.67	17.08	15.33	17.17	15.92
	χ^2	8.15*	8.41*	7.92*	8.90*	8.24*
생활 비	20만원 미만	18.96	14.69	17.12	14.73	15.85
	20~40 만원	14.17	18.96	15.54	18.04	16.42
	40만원 이상	21.35	21.15	22.10	22.10	22.70
	χ^2	6.86*	7.06*	7.06*	6.80*	6.81*
배우자	있 음	17.53	18.22	18.97	18.75	18.66
	없 음	23.00	15.67	7.67	10.00	11.00
	χ^2	8.00*	8.67*	6.67*	7.25*	7.08*
자녀	있 음	17.61	17.73	16.58	17.37	17.00
	없 음	21.00	20.13	29.00	22.83	25.75
	χ^2	8.36*	8.62*	5.99*	7.81*	6.97*

* .001수준에서 유의적임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유무와 자녀유무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주부와 자녀가 없는 주부가 가사일에 대한 조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의학적 변인에 따라 지체장애주부의 조직적인 행동에 차이가 있다.

가설 2를 증명하기 위하여 Kruskal-Wallis의 순위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 <표 4>와 같이 의학적 변인 모두가 .001수준에서 의미있게 나타나 가설 2는 긍정되었다.

주부의 장애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 조직적인 행

동의 점수가 높았으며, 도움없이 보행가능한 주부보다 지팡이나 목발의 도움으로 보행가능한 주부가 가사일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팔장애가 있는 주부가 가사일에 대한 조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팔과 다리장애를 지닌 주부가 가사일을 수행하는데 장애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주부들은 표준화와 분담화요인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미루어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가사일에 대한 부담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의학적 변인에 대한 조직적인 행동 검증 (N=35)

의학적 변인	조직적인 행동	일의표준화	일의분담화	일의조정화	일의정리화	총 점 수
장애기간	1년 미만	13.17	22.33	11.17	13.50	16.00
	1년~5년 미만	22.06	20.89	19.39	18.61	20.33
	5년~10년 미만	17.50	6.50	6.00	17.50	8.50
	10년 이상	17.00	17.24	19.52	18.43	18.19
	χ^2	7.11*	6.46*	6.18*	8.11*	5.99*
보행상태	도움없이 보행가능	18.08	18.68	17.95	17.90	17.26
	지팡이, 목발의 도움	17.38	12.75	18.38	18.75	23.75
	χ^2	9.07*	7.71*	9.14*	9.03*	7.24*
장애부위	팔	17.13	19.85	23.00	21.63	19.25
	다리	17.74	16.40	18.98	18.66	18.28
	팔과 다리	19.67	23.42	10.58	12.83	16.00
	χ^2	8.61*	7.05*	6.31*	7.19*	8.82*

* .001수준에서 유의적임

<가설 3>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참여도에 차이가 있다.

가설 3을 증명하기 위하여 Kruskal-Wallis의 순위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 <표 5>와 같이 남편의 참여도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모두가 .001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나, 자녀의 참여도는 주부의 연령과 배우자유무에서만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증명되었다.

주부의 연령이 30세미만인 경우,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수가 적을수록, 생활비를 적게 쓰는 가정의 주부일수록 가사활동에 대해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남편이 주부의 여가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주부의 자녀들이 배우자가 있는 주부의 자녀들보다 가사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설 4> 의학적 변인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참여도에 차이가 있다.

가설 4를 증명하기 위하여 Kruskal-Wallis의 순위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 <표 6>과 같이 남편의 참여도는 의학적 변인 모두가 .001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나, 자녀의 참여도는 유의수

준에서 의미없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4는 남편의 참여도에서만 긍정되었으며, 주부의 장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와 보행시 지팡이나 목발의 도움이 필요한 주부인 경우 가사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남편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3. 종속변인의 각 요인별 분석

종속변인인 조직적인 행동과 가족구성원의 참여도를 각각의 요인별로 나누어서 각 요인간의 관계를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직적인 행동요인간의 관계는 일의 표준화요인과 조정화요인은 유의적인 부적상관관계로, 표준화요인과 정리화요인, 조정화요인과 정리화요인은 유의적인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표 7> 즉,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의 방법과 순서 등의 체계를 유지하여 수행하는 주부는 일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의 절차와 계획을 융통성있게 조정하며 가사일의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주부의 전체적인 활동에 균형을 유지한다.

가족구성원의 참여도 요인간의 관계는 <표 8>과 같이 남편의 가사활동 참여도와 여가활동 참여도, 자녀의 가사활동 참여도와 여가활동 참여도 등은

Table 5.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참여도 검증

인구 통계학적 변인	가족구성원의 참여도	남편 (N=32)			자녀 (N=27)		
		가사활동	여가활동	총 점 수	가사활동	여가활동	총 점 수
주부의 연령	30 세 미 만	22.30	22.00	23.20	0	0	0
	30 ~ 39	18.15	14.25	15.25	5.88	6.56	5.44
	40 ~ 49	11.17	14.83	13.00	13.72	15.56	13.67
	50 세 이 상	16.81	17.75	17.81	20.75	18.55	21.15
	χ^2	5.61*	6.50*	5.99*	15.96*	11.31*	17.69*
학 력	국민 학교 졸업	21.83	13.92	18.67	14.56	10.88	14.38
	중 학교 졸업	11.85	15.70	13.35	14.07	13.14	12.21
	고 등 학교 졸업	15.11	17.67	16.44	15.50	19.56	17.44
	대 학교 졸업	20.36	18.36	19.21	9.75	10.63	9.50
	χ^2	5.41*	7.47	6.85*	1.51	6.34	3.20
가 족 수	2 ~ 3 명	18.92	20.50	20.25	21.00	15.83	19.83
	4 ~ 5 명	15.75	15.35	15.52	12.55	13.68	12.79
	6 ~ 7 명	16.58	16.33	16.00	15.30	14.10	15.10
	χ^2	7.83*	1.17*	17.32*	3.17	.20	2.13
생 활 비	20 만 원 미 만	18.65	14.90	17.15	13.28	10.67	13.17
	20~40만원 "	16.58	17.33	16.88	15.35	16.05	14.75
	40 만 원 이 상	14.25	17.10	15.40	13.13	15.19	14.00
	χ^2	7.36*	7.93*	8.23*	.47	2.58	.19
배 우 자	있 음				3.13	13.77	12.88
	없 음				21.00	15.83	23.00
	χ^2				2.68	.19	4.34***
자 녀	있 음	16.71	16.13	16.46			
	없 음	15.00	10.13	16.75			
	χ^2	8.38*	8.01*	8.79*			

* .001수준에서 유의적임

*** .05수준에서 유의적임

유의적인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의 가사활동을 많이 도와주는 남편과 자녀는 주부의 여가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것과 주부의 취미활동과 사교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남편과 자녀들이 주부의 가사활동을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적인 행동과 가족구성원의 참여도와의 관계

는 <표 9>와 같다. 일의 표준화요인과 남편의 가사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유의적인 부적상관관계로서, 체계적으로 일의 방법과 순서를 고려하여 수행하는 주부는 남편의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의 분담화 요인과 주부의 여가활동에 대한 남편과 자녀의 참여도는 유의적인 정적상관관계로서, 일의 조정화요인과 자녀의 가

Table 6. 의학적 변인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참여도 검증

가족구성원의 참여도		남편 (N=32)			자녀 (N=27)		
		가사활동	여가활동	총 점 수	가사활동	여가활동	총 점 수
의학적 변인	1년 미만	26.00	28.50	27.25	12.00	13.67	13.67
	1년~5년 미만	9.64	13.86	12.29	15.50	16.94	16.81
	5년~10년 미만	22.75	9.50	16.75	10.75	9.50	9.00
	10년 ~ 이상	17.29	16.90	16.81	14.04	13.04	13.18
	χ^2	5.11*	5.66*	5.93*	.83	2.07	1.95
보행상태	도움없이보행가능	15.57	15.91	5.59	13.54	14.19	13.65
	지팡이, 목발의도움	25.50	22.17	25.33	26.00	9.00	23.00
	χ^2	6.36*	7.29*	6.45*	2.42	.44	1.36
장애부위	팔	7.25	16.50	11.88	14.50	21.25	16.25
	다리	18.84	16.38	17.44	12.45	12.75	12.30
	팔과 다리	9.33	17.50	14.83	20.00	16.10	19.90
	χ^2	5.01*	8.59*	7.25*	3.71	2.67	3.90

* .001수준에서 유의적임

Table 7. 조직적인 행동 요인간의 상호관계

	일의표준화 r_s	일의분담화 r_s	일의조정화 r_s
일의분담화	.133		
일의조정화	-.554*	.098	
일의정리화	.432**	.107	.673*

* .001수준에서 유의적임

** .005수준에서 유의적임

Table 8. 가족구성원의 참여도 요인간의 상호관계

		남편		자녀
		가사활동 r_s	여가활동 r_s	가사활동 r_s
남편	여가활동	.562*		
자녀	가사활동	-.168	-.215	
	여가활동	-.203	-.049	.820*

* .001수준에서 유의적임

Table 9. 조직적인 행동과 가족구성원의 참여도와의 관계

가족구성원의 참여도	남편의 참여도		자녀의 참여도	
	가사활동 r_s	여가활동 r_s	가사활동 r_s	여가활동 r_s
조직적인행동				
일의표준화	-.370***	-.294***	-.122	-.052
일의분담화	.007	.353***	.246	.617**
일의조정화	.002	.140	-.513**	.138
일의정리화	.025	.212	-.324**	.426**

** .005수준에서 유의적임

*** .05수준에서 유의적임

사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유의적인 부적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일의 정리화요인과 자녀의 가사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유의적인 부적상관관계가 있으나 자녀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도와는 유의적인 정

적상관관계로서 자신의 전체적인 활동에 균형을 유지하는 주부는 가사활동에 대해 자녀의 도움을 받지 못하나, 자녀들이 주부의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체장애주부의 조직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주부의 연령, 학력, 가족수, 생활비, 배우자유무, 자녀유무와 의학적 변인인 장애기간, 보행상태, 장애부위였다.

2. 지체장애주부의 가사활동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다음과 같다.

1) 남편의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주부의 연령, 학력, 가족수, 생활비, 자녀유무이며 의학적 변인인 장애기간, 보행상태, 장애부위였다.

2) 자녀의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주부의 연령과 배우자유무로 나타났다.

3. 지체장애주부가 수행하는 조직적인 행동요인 중 일의 표준화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구성원의 참여도는 장애가 없는 주부보다 가족구성원들이 지체장애주부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 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가사활동에 대한 참여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4. 가사일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 높은 주부는 가사활동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참여도가 낮았으며 반면에 가족구성원들이 주부의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자뿐만 아니라 심신장애자에 대한 연구가 가정학의 영역에서 매우 부진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체계적인 연구 즉, 조사대상자의 확대, 심리적 변인과의 관련성연구, 작업의 효율화(work simplification)를 위한 환경조성연구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심신장애자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1. 장애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 장애로 인해 생기는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이해, 장애가 생긴 후의 대인관계와 장애자의 자아개념 등을 포함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장애자와 그의 가족구성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장애자에게는 가정관리행동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일이므로 장애자들을 위한 가정관리훈련과 장애가 생긴 후의 환경에 대한 적응훈련이 필요하므로,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자들에게 이러한 훈련과정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심신장애자 실태조사 보고서, 1980.
2. Gokhale, S.D., "Social and Economics Implications of Investment in Rehabilitation Service for the Disabled," *Social Work*, June, 1976.
3. Goldsmith, S., "The Disabled: A Mistaken Policy?" *Rehabilitation in Australia*, vol. 38, October, 1972.
4. Malick, M.H., Introduction to PHS Project #HS 00007-02 Handicapped Homemaker Resource and Training Center, Harmarville Rehabilitation Center, Pittsburgh, 1968.
5. Schlater, J.D., "The Management Process and Its Core Concept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9, No. 2, February, 1967.
6. Blake, R.R., and Mouton, J.S., *The Managerial Grid*, Huston Tex: Gul Publishing Co., 1966.
7. Bell, H., One Home Management Concept-Organization, Proceedings of Conference on Teaching Home Management, Purdue University, 1962.
8. Tasker, G., "Case Studies of Homemaker's Organization," (Unpublished Thesis for Master, Cornell University, 1962).

9. Stouffer, G.C.,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Satisfied and Dissatisfied Homemakers," (Unpublished Thesis for Master, Cornell University, 1964).
10. Nichols, A., "Person-Centered and Task-Centered Styles of Organization," (Unpublished Dissertation for Ph. D.,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64).
11. Beppler, M.C. "An Exploration of Physically Disabled Homemaker's Organizational Activities, Family Participation and Rehabilitation Success," (Unpublished Dissertation for Ph. D.,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2).
12. Mumaw, C.R., "Organizational Patterns of Homemakers Related to Selected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Unpublished Dissertation for Ph. D.,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67).
13. Walker, F.S., "Self-Imposed Housekeeping Standard,"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0, No. 6, June, 1968.
14. Nichols, A., "Organizational Process Eliciting Help."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8, No. 9, November, 1966.
15. Mumaw, C.R., and Nichols, A., "Organizational Styles of Homemakers: A Factor Analytic Approach,"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Vol.1, No. 1, October, 1972.
16. Weimer, A.M., *Business Administration*, Richard D. Irwin, Inc., Homewood, 1966.
17. Uski, R., "Home Economics in The Services of the Handicapped," *International Foundation Home Economics*, 1978.
18. Landis, P.H., *Introductory Sociology*, New York: Ronald Press Company, 1958.
19. Perella, V.C., "Marital and Family Characteristics of Workers," *Monthly Labor Review*, March, 1963.
20. 이정우, "가족성원간 가사분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0권, 제 2 호, 1970.12.
21. 윤복자, "가사노동 및 작업시간", 「대한가정학회지」, 제13권, 제 2 호, 1975. 7.
22. 서영숙, 조필교, "가족성원간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4권, 제 4 호, 1976.
23. 임정빈, "도시 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9권, 제 2 호, 1981.6.
24. Steidl, R.E., and Bratton, E.C., *Work in the Home*,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8.
25. Manning, S.L., Time Use in Household Tasks by Indiana Families, Indiana Agr. Exp. Sta. Res. Bull. No. 837, January, 1968.
26. Plott, C.E., "Homemaking Time Spent in Household with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Members," (Unpublished Dissertation for Med.,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68).
27. Parker, F.J., "Task Distribution Within the Family,"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8, No. 5, May, 1966.